

지역 소식통

고창 대산면서 이동균청

유기상 고창군수가 10일 대산면을 찾아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 군수는 대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을 만나 하천 정비, 전통시장 노후화 보수 등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또 기업현장을 방문해 고창쌀의 브랜드화를 위한 의지도 다졌다. 아울러 특목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싱크대 교체, 문풍지 달기, 이불 지원 등 봉사활동을 하는 현장을 찾아 추운 겨울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군은 이번엔 접수된 각종 민원을 해당부서에 전달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처리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군민들의 만족스런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더 좋은 쉼터' 마무리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더 좋은 쉼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더 좋은 쉼터'는 코로나19에 방수칙을 준수한 철저한 가운데 지난 5월부터 약 8개월간 8주~10주씩 총 4개 반을 운영했다. 또 센터 방문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가정방문을 병행해 쉼터 운영을 진행했다.

'더 좋은 쉼터'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를 보호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과 치매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쉼터를 이용하는 경증 치매 환자에게 인지력 감퇴 완화와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줬다. 또한 공예 활동과 원예 활동, 요리 활동, 난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감 완화를 정서적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전국 첫 반값등록금 실현

## 대학 4학년까지 지원... 인재육성 교육환경 조성 취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 관내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해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이 2021년부터는 대학교 4학년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난 2015년 반값등록금 지원이 대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지원된 이후 대학교 전 학년으로 지원되게 됨에 따라 '전국 최초의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성과를 맺게 되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04년에 설립하게 되었다.

부안군이 3억원의 군비를 출연하여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전신인 부안군예향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의 기초를 세웠다. 이후 부안군 향우인 근농 김병호 회장이 고향의 후배를 위해 지역 인재육성에 10억원 상당의 기여를 기탁한 것을 계기로 부안군 장학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지역인재에 대한 군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2018년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청소년과 인재양성팀이 신설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역사

회의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재단설립 이후 2014년까지는 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장학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저금리 시대 진입으로 장학기금만으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과 청년 부채 난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러한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향우는 물론 주민 기관 공무원 등이 한바름으로 CMS 정기후원과 일시기탁을 통해 지역의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8년말 기준으로 정기후원회원이 5,000여명으로 연 6억원의 장학금 후원의 성과로 부안군의 교육자치 실현을 이루어 냈으며, 기부문화의 확산으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의 최종 성과물인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아울러 2019년에는 부안군 장학사업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를 토대로 2020년 올해에는 반값등록

금의 지원 대상을 대학교 3학년까지 확대했고 부안군 인구유입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다자녀 장학금을 신규로 신설하게 되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2020년도 제4차 이사회 의결로 2021년도의 장학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장학사업의 내용은 기존에 대학교 3학년까지 지원했던 반값등록금을 대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고, 셋째이상 자녀 중 신임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다자녀 장학금을 대학교 4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예체능 등 기능분야에 특기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기장학금,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창업 및 취업을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되는 대학비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 지원금과 학교장 추천을 통해 귀감이 될 만한 동아리에 지원되는 고등학교 봉사활동 장학금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원했던 성적우수 장학금과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게 지원되었던 희망 장학금은 반값등록금으로 통합하여 일원화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 고창 '서해안북분자주' 중국 수출 선적

1만5000병, 3000만원 상당

고창서해안북분자주(대표 송지훈)가 중국으로 북분자주 수출을 위한 선적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수출품목은 고창북분자주 '선운(도수 15%, 375ml)'으로 최상급 고창 북분자를 황토 토굴에서 발효시킨 술이다.



2003년 대통령사주, 2005년 APEC 공식민찬주, 2017년 청와대 민찬행사 건배주 등으로 사용돼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이번 물량은 1만 5,000병(3,000만원

상당)이 선적됐으며, 중국 산동성내 백화점 등에 유통될 예정이다.

고창서해안북분자주 송지훈 대표는 "지난 10월 호주 수출에 이어, 이번 중국 수출을 통해 북분자주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청 이영운 농어촌식품과장은 "고창 농특산품의 지속적인 수출을 통해 지역 농가는 물론 가공업체 소득 향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시, 저수온·한파 대비 양식장 관리 당부

정읍시는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가 시작됨에 따라 내수면 양식장이 저수온으로 인한 어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읍면동과 양식장 106개소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겨울철 휴전에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면 양식사업 재해 대책을 수립

했다. 또 양식장별 담당자 지정과 비상 연락망을 정비하고 노후시설 점검, 비상 발전기 가동 여부 확인 등 사전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양식생물은 수온이 낮아지면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고, 면역기능과 생리 대사 활동이 떨어져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따라, 육상시

설양식장은 보온덮개 등으로 보온을 강화하고, 보일러·히트펌프 등 가온 시설 사전점검, 출입문은 비닐 등으로 이중설치하면 좋다. 노지 양식장은 수차 등 수면 위의 장비를 고정하고, 양식장 붕괴 결빙과 미끄럼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수온기에는 양식생물의 생리 대사 활동이 떨어지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수온이 상승하는 오후에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좋다. /정읍=김대환 기자



모래판의 최강자를 가리는 2020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 가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 “모래판 최강자는 나야 나”

###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 개막... 무관중 경기로 13일까지 진행

모래판의 최강자를 가리는 2020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 가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지난 8일을 시작으로 올 한해 씨름 판을 총결산하는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는 10일 개막식을 열고 오는 13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개회식에서 유진섭 정읍시장과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은 씨름 진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씨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씨름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태백, 금강, 한라군의 경기와 천하장사 결정전 등이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씨름경기장에 입장하는 선수단을 비

롯한 관계자는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입장 가능하다.

또한 경기장 출입 시 체온측정과 명부 작성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매일 3회씩 경기장 내부를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14일부터 19일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위더스제약 2020 정읍 민속씨름리그 왕중왕전이 펼쳐진다.

왕중왕전에서는 체급별 장사대회와 민속씨름 리그전 성적이 좋은 다섯개 팀이 겨루는 최강단체전이 열리며 정읍시청 단풍마인씨름단도 참가한다.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와 왕중왕전 모든 경기는 대한씨름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KBS와 KBS N 스포츠에서도 생중계된다. /정읍=김대환기자

## 부안군, '어촌뉴딜 300사업' 2곳 선정

### 치도항, 왕포·작당항 등 총 사업비 189억원 확보

부안군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치도항(위도의 봄 꽃섬을 품은 바지락마을 치도항)과 왕포·작당항(누구나 살고 싶은 귀여귀촌 일번지) 등 2개소가 선정돼 국비 132억원 등 총사업비 18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치도항은 경관활용형으로 총사업비 115억원(국비 80억원, 지방비 35억원)을 3개년에 투자해 방파제 및 물양장 조성, 큰단지도 꽃섬 해양공원 조성, 수산물 가공 및 마을 브랜드 개발 등 어항구역 개선사업 및 관광병소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왕포·작당항은 재생기반형(복지)으로 총사업비 74억원(국비 51억원, 지방비 23억원)을 3개년에 투입해 방파제 정비, 어구보관창고 신축, 낚시체험장 운영 등 왕포·작당항의 색깔을 담을 예정이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어업인의 어업환경 및 직접적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6개소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2개소 사업 추진으로 전체 8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